

제목: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습니다”

말씀: 에스겔 37장 1-10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불가능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 1) _____를 제대로 보라고 하십니다. (2절)
- 2) 듣지 못할 자들에게 _____하라고 하십니다. (4절)
- 3) 하나님의 _____을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9절)

지난주일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2시
2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에스겔 37장 1-10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Ezekiel 37: 1-10 구약 1209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습니다 김성민 목사
Message I trust and belive You Lord Rev. Jason Kim
- 찬 양 535(325) 주 예수 대문 밖에 다 같 이
Praise O Jesus, Thou art standing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과 헌신의 기도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Only Jesus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Jason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10683 NW Valley Visata Rd. Hillsboro, OR 97124 (503)332-1941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상관없습니다)

올해는 여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여름이라고 하면 뜨거운 온도를 생각하지만 이번 여름은 뜨거움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산불로 고생하던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이 올해는 거의 없는 다행이기도 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덥지 않았으니 올해는 많은 과일을 기대하지 못하리라 생각도 되었지만 실은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벌써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의 피부로는 여름이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가지만 말이 없는 자연은 그것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계획에 지장이 많으리라 생각되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창조 하신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온도의 변화에 적응 하며 자신에게 담당되어진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한 주 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건강의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과 사업의 일들, 이 나라와 떠나온 고향의 일들이 있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일들도 있었고, 소망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주를 돌아보면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시간들 같기도 하고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지루한 것 같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인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길은 더욱 분명해 진다. 그 분명함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반복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늘 새로운 길이다.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때에 모든 일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2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말씀이다. 세상에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나를 조여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가야할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여름이 없어서 과일을 못 먹는 아픔인가? 아니다. 과일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과일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길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세상이 우리들을 통하여 보고 싶어 하는 변화된 삶이다. 가을을 맞이하며 새로이 무장된 믿음생활을 준비하자.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교회 장소를 위하여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 2)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도록
- 3) 교회로의 출발을 잘 준비 하도록 (앞으로 함께 할 성도들의 마음 준비)
- 4) 여행 중에 성도들이 건강히 돌아오도록

3. 주일 예배 장소

현재 두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이번 주 묵상 성경 구절

- 월요일: 에베소서 1장 1-14절
화요일: 에베소서 1장 15-23절
수요일: 에베소서 2장 1-10절
목요일: 에베소서 2장 11-22절
금요일: 에베소서 3장 1-13절
토요일: 에베소서 3장 14-21절

5. 헌금 안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시고 Check에 제목을 [New Church of Oregon](#)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